

통합물류협회, 신영수 회장 취임 (CJ대한통운 대표)

한국통합물류협회 제9대 회장인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사진)가 취임했다.



3일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나 해결 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 활동

에코프로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에코브리지 5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꿈 실현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에코프로의 사회공헌 추진방향에 따라 ▲봉사활동 ▲환경 이슈 취재 ▲환경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프로



중진공-VC협회,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 ‘맞손’

중진공은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역량 강화와 벤처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공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

아모레퍼시픽, ‘아리따’展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기업 정체성을 담아 개발한 글꼴을 소재로 한 문화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목소리: 아리따’ 전(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진행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부산 전시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아리따’ 글꼴 행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리따 제작 과정, 글꼴별 특징,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낱말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대동문화재단 △미디어총괄본부장 최혁
- ◆내일신문 △편집국장 김종필

부음

▲김교식씨 별세, 안종진(동일에너지 대표이사)·홍성(휴킨스피부과 원장, 전 국군의무사령관)·종희(브레인 MRO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효열(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씨 빙모상, 김정애(휴킨스 스킨케어 대표)씨 시모상 = 3일 오전 3시,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41-550-7474

에버랜드, 푸바오 일반공개 종료

1155일간 550만명 교감… “출국 당일 환송행사 검토”

한 달간 비공개 상태로 이동 준비 “앞으로도 푸바오 응원해 주시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에버랜드는 3일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대중에 공개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스트리밍 방송도 공개한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생한 자이언트 판다다. 5만명이 공모해 이름을 지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육사들에 애교를 부리는 모습 등으로 사랑을 받아 1155일간 공개돼 550만명을 만나는 등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별을 위해 2주간 12만명이 판다월드드를 찾았으며, 대기 시간만 4시간이 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푸바오는 오는 4월 중국으로 돌



대중에 공개 마지막 날인 푸바오가 3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드에서 강철원 사육사로부터 유채꽃 선물을 받고 있다. /뉴스1

아갈 예정이다.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48개월 이전에는 짝을 찾아 중국에 가야 한다는 국제 규정 때문. 이를 위해 4일부터 1달여간 비공개 상태로 건강과 검역 관리를 받고 이송케이지 적응 등 준비를 해야 한다. 이후 ‘푸바오 할부

지’로 불린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해 쓰촨성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에서 검역과 적응을 함께한다.

에버랜드는 다양한 이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소셜 미디어에서 푸바오 응원 이벤트로 1만건 이상 댓글을 접수, 판다월드

입구에는 가로 4미터에 세로 2.5미터 대형 응원 메시지도 걸었다.

에버랜드는 4일부터 푸바오 특별 영상 상영회를 이어간다. ‘전지적 푸바오 시점’으로 약 25분 분량 영상을 매일 2회 에버랜드 실내 극장에 보여준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날 환송 행사를 검토 중이다. 건강 문제 등을 살펴 이상이 없으면 환송 자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강철원 사육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푸바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희 동물원장은 “중국 판다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푸바오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LG엔솔,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 선보인다

인터배터리 2024

이스즈 엘프 전기 상용차 전시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기술 소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혁신기술과 다양한 소재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및 신사업 등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드니켈(Mid-Ni) 파우치 셀, LFP ESS 셀, BMTS 기술 등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셀, 모듈, 팩 등이 장착된 이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4’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스즈(ISUZU) 엘프(ELF) 전기 상용차를 전시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치형 CTP(Cell to Pack, 셀투팩)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회사는 실제와 유사한 크기로 제작된 자동차 목업(Mock-up)에 셀투팩 적용 배터리를 장착하여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셀투팩 기술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팩 디자인이다.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함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파우

치형 셀투팩은 파우치 셀의 가벼운 무게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팩 강성을 높이고 검증된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팩을 구성하는 부품을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해 제조원가를 절감,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이 외에도 LFP 표준화 전력망 ESS 라인업의 첫번째 제품인 JF1 D C-Link 및 주택용 ESS 신제품 en block S 등도 전시되며,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 및 리튬메탈전지 등 차세대 전지 기술도 소개되어 보급형부터 프리미엄에 이르는 LG에너지솔루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생생한 체험형 콘텐츠와 탁월한 전시 연출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아이오닉6, EPA ‘최고 연료소비효율 車’ 선정

(美 환경보호청)

현대차 롱레인지 후륜 140MPGe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2024년형 신차 가운데 연료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에 따르면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모델(18인치 휠)이 복합연비 140MPGe를 기록하며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다. 이로써 아이오닉6는 2023년형 모델로 인증받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PA로부터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았다.

MPGe는 미국EPA가 현재 사용 중인 전기차 연료소비효율 측정 단위로, 전기차 뒤에는 소문자 ‘e’가 붙는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이 모델의 연비는 2024년형 신차 평균 연비(28MPGe)와 비교해 5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퓨얼이코노미는 이 모델을 5년간 보유할 경우 평균 대비 약 6000달러(약 80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롱레인지 후륜모델(18인치 휠)을 비롯해 아이오닉6 모델 중 4개 차종이 상위 10위권에 포진했다.

일반형 후륜모델은 135MPGe로 3위를, 롱레인지 4륜모델 18인치

휠 모델은 121MPGe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롱레인지 후륜모델 20인치 휠 모델(117MPGe)은 7위에 올랐다.

기아 EV6 롱레인지·스탠더드 후륜모델(117MPGe)도 공동 7위에 랭크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116MPGe)는 8위,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후륜모델(114MPGe)은 10위에 자리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집계한 연료 효율 상위권 10위 안에 한국산 전기차 모델이 8개나 포함된 것이다.

앞서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모델은 지난달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가 공개한 전기차 주행거리 평가 결과에서도 1위를 했다. 이 모델은 1시간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1396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운 기자 ysw@

교원라이프 상조부문 소비자평가 1위

교원라이프가 ‘2024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KCAB)’ 상조 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통산 4회째다.

3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업계 평판을 상회하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앞세워 지난해 유지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탑티어(Top-Tier)’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선수급 규모도 2020년 5000억원(5020억원)에서 불과 2년여 만인 지난해 3월말 1조원(1조5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직 교원라이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마련해 고객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